광주·전남 신종플루 발생률 낮다

출입국자·지역간 이동인구 적은 탓

전국 확진 7,574명 … 광주 68·전남 204명

신종플루 환자가 전국적으로 7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환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제주와 함께 유일하게 환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일 자정 현재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7천5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4명, 뇌사상태가 1명이며, 중증환자 3명을 포함해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새로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환자는 지난 8일 하루 최고치인 691명을 기록했고, 이틀날인 9일 677명을 합쳐 이틀새 1천36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기간 광주 확진 환자는 68명으로, 지난 8일과 같은 수준을 보이는 등 광주의 신종플루 감염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 환자수는 서울 1천527명, 부산 592명, 인천 491명, 대구 294명, 대전 184명, 울산 282명 등이다.

전남 역시 204명으로 광주, 제주(87명), 전북(179명), 대전(184명)에 이어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환자 수가 적었다.

광주·전남 전체 환자수는 272명으로 국내 전체 환자의 3.6%에 그쳐 지역 내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6.6%)보다 훨씬 낮다.

지역 환자 수가 적은 원인으로는 시·도 등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예방법 홍보와 대형 행사 취소·연기 등 기민한 초기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은 데다, 해외 교류나 지역간 이동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또 최초 환자 발생도 타 지역에 비해 늦었다.

시 관계자는 "신종플루로 인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3대 국제행사 등을 취소한 것은 물론 최초 확산 기미를 보일 때부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면서 집단감염이 거의 없어 환자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올 단풍 색깔 곱다

일조량 풍부·일교차 커

내장산 23·무등산 26일

올해 단풍은 평년보다 다소 늦게 시작되지만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고운 색깔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내달 1일께 설악산에서 들어서 같은 달 20일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산 별로는 13일 지리산, 19일 한라산, 23일 내장산, 26일 무등산, 11월5일 두륜산 등의 순서로 단풍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단풍은 전국적으로 평년(최근 30년간의 평균값)보다 1~8일 정도 늦을 것으로 보이며 중부지방과 지리산에서 10월 1~20일께, 남부지방에서 10월 20~11월 5일께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풍 절정기도 대부분 평년보다 늦어져 중부지방 10월24~29일께, 남부지방 11월 상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렸고 9~10월에는 맑은 날이 많아 단풍철이 다소 늦게 시작되겠다"며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색고운 단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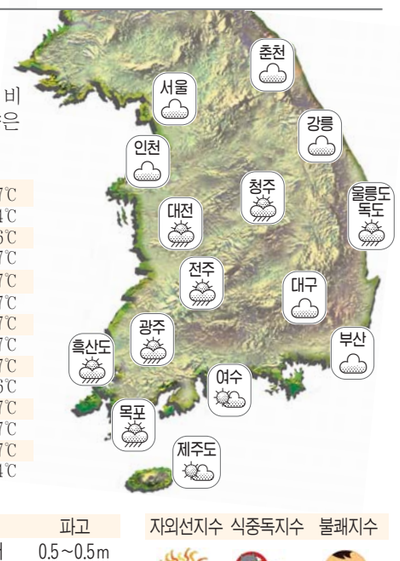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2분 / 해짐 18시 46분 — 달뜸 22시 30분 / 달짐 12시 44분

가을밤 빗방울 소리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은 5~30㎜.

광 주	흐리고 한때비	18/27℃
목 포	흐리고 한때비	18/24℃
여 수	맑은뒤 흐림	20/26℃
완 도	맑은뒤 흐림	17/27℃
구 례	흐리고 한때비	15/27℃
해 남	맑은뒤 흐림	14/27℃
장 흥	맑은뒤 흐림	14/27℃
고 흥	맑은뒤 흐림	14/27℃
순 천	맑은뒤 흐림	17/27℃
영 광	맑은뒤 흐림	16/26℃
진 도	맑은뒤 흐림	16/27℃
전 주	흐리고 한때비	16/27℃
남 원	흐리고 한때비	14/27℃
흑산도	흐리고 한때비	19/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보통

	밀물	썰물
목포	05:54	11:09
	18:52	23:52
여수	00:02	06:22
	13:18	19:18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 씨						
최저/최고	18/27	17/28	18/26	19/27	18/27	18/27

"법원 안팎 소통 원활하게"

정갑주 신임 광주지법원장 취임

"법원 안팎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법 선진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정갑주(사진·55)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10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사회든 소통만 잘되면 문제가 없다"며 "조직 안팎의 소통을 위해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게 하려면 법원과 국민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들은 물론, 참여관과 실무관 등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선진 외국의 법률과 사법제도에 깊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법정 중심의 재판을 위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법원장은 "법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재판기관이자 동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모든 직원들의 뜻을 모아 동료애가 꽃피는 즐겁고 행복한 직장으로 가꿔나가자"고 당부했다.

강진 출신인 정 법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법·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제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등 대부분의 법관생활을 광주·전남에서 지낸 대표적인 지역 법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명문중' 설립 허가 배경 논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아내 '전력' 문제

광주에 오는 11월 개교하는 중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허가에 대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0일 "내년 3월 폐교를 앞둔 진명중학교를 대체할 '명문중학교'를 인가, 오는 11월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3학기제로 2년 만에 중학교 과정을 마치며 정원은 주·야간 2학급씩 4학급 128명이다.

하지만 이 학교 설립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폐교명령을 받은 진명중학교 설립자의 남편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3월 개교한 진명중학교는 설립자인 이모(여)씨가 업무상 보조금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2008년 11월 학교인가가 취소됐다.

시 교육청은 인가가 취소된 진명중에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신설되는 명문중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2억~3억원의 보조금을 줄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군수 동생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윤강열)는 10일 박우량 신안군수의 친동생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재경 향우회 간부들에게 일괄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친형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신안군 병어축제 기간 신안군 출신 서울 향우회원들에게 660만원 상당의 병어 100여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